

## 로고스(말씀, Logos)과 Incarnation(성육신)과 성자의 영원한 발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 설명인 “성자의 영원한 발생”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성육신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말로 설명하여 이성적으로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계시와 믿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자의 영원한 발생에 대해 공부함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John 1:14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공부하기 위해 이 구절 안에 있는 각 단어의 독특한 의미부터 공부해 보십시오.

### I. 말씀의 의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한 말에서 말씀은 그리스어로 Logos 를 번역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고스를 뉘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간단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헬라적 의미에서 로고스의 의미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여기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 어떤 영속하는 원리, 불변의 모형을 설명해주는 통일의 원리, 법칙, 또는 이성<sup>1</sup>을 의미’합니다.

---

<sup>1</sup> D. Guthrey NTT p367(한)

2.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로 유대 문화를 헬라 문화에 접목시키려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고스를 ‘만유보다 처음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필로의 로고스는 **기독교에서처럼 로고스의 인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필로가 의미하는 로고스는 하나님과 세계를 연결해 주는 로고스의 선재성을 말하는 것으로, -만유보다 처음 난 아들 이라고 했지만 인격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로고스가 성육신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 3. 로고스의 유대적 배경 : 구약적 배경

로고스의 유대적 배경은, 로고스의 헬라적 의미 즉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 어떤 영속하는 원리, 또는 이성과는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씀은 *dabar*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뿐만 아니라 생각, 계획을 포함합니다<sup>2</sup>.**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잡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1 유대적 의미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 계획을 나타냅니다.

시편 33 : 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3.2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창조에 개입하였음을 말합니다. 시 33:6 을 보십시오.

시편 33 : 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3.3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55 :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3.4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말씀의 의미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20:9 겔 33:7)

예레미야 20 :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

<sup>2</sup>. 1. *The Hebrew Equivalents of the Greek Terms for "Word."* The roots *mr* and *dbr* are the main equivalents for *lógos*, *lógion*, *rhēma*, and *rhēsis*. The former has a more poetic reference when used for "saying" (cf. [Pss. 19:2-3; 68:11; Job 22:28](#)<sup>3</sup>), and the latter offers the classical terms for "word" in history, law, prophecy, and poetry. Etymologically the root sense seems to be "back." The reference, then, is to the background or content or meaning of what is said. In speech the content stands for the thing. The thing thus takes on a historical element in its word. The word (*dābār*) contains a thought. It makes a thing known, so that to grasp the word is to grasp the thought. But the word is also dynamic. It is filled with a power which is felt by those who receive it but which is present independently of such reception. As the prophets see and proclaim, these two aspects are most forcefully to be seen in God's word. Kittel Ntt. Dic, *logos*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스겔 33 : 7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3.5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와 지혜의 선재성을 나타내 주는 탁월한 구절은 지혜에 대해 말하는 잠 8 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8 : 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 8 : 23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잠언 8 : 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언 8 : 25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언 8 : 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잠언 8 :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잠언 8 : 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잠언 8 : 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잠언 8 :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언 8 : 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잠언은 마치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 4. 요한 복음에서의 로고스

##### Logos 의 용법<sup>3</sup>

##### 1. 말로 하고 듣는 일반적인 용법: saying(logos)

요한복음 18 :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sup>3</sup>. D. Guthrey 신약 신학 “로고스” P. 321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sup>32</sup> That the **saying(logos)** of Jesus might be fulfilled, which he spake, signifying what death he should die. (KJV)

2. 예수의 말씀이 취하고 있는, 인간의 말로는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법 : **word(logos)**

(A theological & religious use in which the words of Jesus take on character impossible to men's word)

요한복음 5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sup>24</sup>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heareth **my word**, and believeth on him that sent me hath everlasting life, and shall not come into condemnation; but is passed from death unto life. (KJV)

3. 예수의 말씀 전체를 가르키는 용법: **saying(logos)**

요한복음 8 :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sup>51</sup> Verily <G281>, verily <G281>, I say <G3004> unto you <G5213>, If <G1437> a man <G5100> keep <G5083> my <G1699> **saying <G3056>**, he shall <G2334> <G0> never <G3364> <G1519> <G165> see <G2334> death <G2288>.

4. 로고스를 예수 자신에게 적용하는 용법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4.1 로고스의 의미

요한 사도는 헬라적 로고스의 의미인 우주의 보편적 원리로서의 로고스, 또 유대적 의미에서의 말씀의 의미를 훨씬 뛰어 넘어, 로고스의 신성, 선재성, 인격성, 전능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 :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신성(하나님이시니라), 선재성(태초에;시간이 있기 전에), 인격성을 가졌고(그가), 전능성(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창조전부터 선재하신다. 전능성을 가졌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다.

#### 4.2 로고스의 신성

##### ㄱ. 로고스의 신성을 언급함에 있어 하나님이심을 선언함

요한복음 1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ㄴ. 로고스의 세상과의 관계 :3 절 로고스의 전능성

요한복음 1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ㄷ. 로고스의 인간과의 관계: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안에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로써 말씀이 성육신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폭탄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3 로고스의 하나님 안에서의 내재성

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는 태초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안에 말씀으로 있었다.

요한복음 1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 말씀의 내재성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2 세기때에 에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은 선재하는 로고스의 내재성에 대하여,

선재하며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인격으로서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의 사고이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속에 말씀과 지혜를 영원전부터 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정신이고 전적으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말씀이고 그의 말씀은 그의 지성이며, 성부는 만물을 포괄하는 그런 지성입니다<sup>4</sup>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함으로 100% 신성이 100% 사람이 된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십니다.

II.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flesh, sarx 입니다. 육신이 flesh, sarx 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육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 전인(全人, Whole man)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 안에 내재하던 말씀이, 육신을 취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 안에 신성을 가지시고 내재하던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 년전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태어나신 그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안에 내재하시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성자의 발생을 말합니다.

우리 또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sup>4</sup> . J.N.D. Kelly Early Church History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 III. 독생자의 의미

독생자라는 말은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독생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첫번째 스텝은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관념하에서 이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전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현대적으로 역사적 예수-이 말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이다'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이해했던 사람의 대표적 조상은 아리우스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3세기 말부터 4세기에 걸쳐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혔습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이 아들을 낳듯, 그렇게 낳았다고 하는 전제에 의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낳은 자와 낳음을 입은 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참하나님은 아니고 참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피조된 그런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필연적으로 유일신이 아닌 다신론으로 귀착합니다.

그러면 낳은 것이 출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발생이라는 특별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발생과 출생의 다른 점은 발생은 출생을 포함하지만, 발생은 발생된 자와 발생하는 자 사이에 본성의 변화나 감소나 변질이 없습니다. 발생된 자와 발생하는 자는 동일 본질입니다, 유사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아무 감소 없이 변화없이 분리없이 그대로 간직한, 그렇지만 인격적으로는 성부와 구별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발생을 1세기 교회의 변증자들은 촛불의 비유로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촛불은 다른 촛불에 붙여 주어도 본래의 촛불은 아무 경감없이 타고 있고, 불임을 받은 촛불도 스스로 태우며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해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붙여준 촛불이 존재하고 있었음과 같이 불임을 받은 촛불도 미리 존재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성자는 성부로 부터 발생한 분입니다. 낳음을 입은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 미리 독립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본성으로 계시던 말씀이 밖으로, 신성에 아무 감소 없이 변화없이 분리없이, 발생된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해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성부 안에 성부와 같은 본성을 가진 성부의 말씀이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 바로 이것이 성자의 영원한 발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세기 때에 유명한 신학자인 이레나이우스는 성자의 발생 시점에 대해 창세때라고 하였습니다. 성자는 천지 창조때 성부로 부터 처음 발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삼위일체를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고 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성자는 영원하신 성부로 부터 발생하나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같은 하나님입니다. 성자는 성부로 부터 발생하지만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같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의 발생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입니다. 이 말은 성자의 발생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발생을 포함하지만, 의지의 발생이 전부가 아닌, 본성에 의한 발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발생은 영원하신 성부 안에 본성으로 내재하신 말씀이 영원히 본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성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 부터 발생하고,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같은 하나님이지만,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부터 발생하는 분이기에 인격적으로는 언제나 성부께 종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자신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골로새서 1 :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Who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골로새서 1 :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 :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 :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라는 말은 제일 먼저 시간 안에서 출생했다는 말이 아니고, 발생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처럼,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는 자들처럼, 이 구절을 사람이 아들을 낳듯, 그렇게 시간 안에서 제일 먼저 낳음을 입은 자라고 해석하면 옳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모두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에서는 ‘first begotten son(K.J.V.)’은 피조성을 가진 아들임을 나타내는데 아들이 아니고, 영원히 발생하신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안에서 영원히 말씀으로 발생하시던 성자 하나님이 창조시에 창조에 개입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